“지역균형 발전 위한 전략 마련 시급하다”

광전연 개원 30주년 정책연구 특집호 발간

중앙집권적 사고 수도권 과밀화 초래

지역낙후도 등 고려 정책적 판단 필요

과거 경부축 중심의 국가발전전략과 가속화되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오히려 광주전남을 비롯한 특정지역 중심의 국토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개원 30주년을 기념한 광주전남정책연구 여름호 특집 발간으로 전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신균형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산업육성 성과를 대표하는 지역내총생산 추이(1987~2019)에 있어 호남권은 전국 평균 성장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또한 연구개발비가 정부 출연기관과 연구시설이 집중된 충청권과 영남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광전연의 분석이다.

황성웅 부연구위원은 “최근 충청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산업·과학기술 투자는 호남권을 국가산업지도의 변방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연구시설 지원 등 균형잡힌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태다”고 진단했다.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 부분만 불균형이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60여년 동안 수도권과 영남권에 재정의 64.1%가 집중됐지만, 충청권과 호남권에는 13~15% 안팎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30년 이상 비수도권 지역 사업의 발목을 잡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IMF 재정 위기 당시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가 오히려 지금은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어, 타당성 검토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과 재정에 대한 수도권 집중투자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현상이 나타나며 광역교통망과 공공서비스시설까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신동훈·양철수·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집중은 결국 비수도권 지역에 교통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광주·전남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도 SOC 투자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순 수요에 맞춤화된 SOC사업의 개편 ▲수요자 분담을 반영한 재정투자 검토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민자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서정원 연구위원은 효율성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야기된 ‘도농간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투자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배가 되는 상황이지만,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지원 등 정부 차원의 균형발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상황이다”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간 성장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불균형적 성장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9월부터 광산구 소재 우산빛여울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사업 대상은 우산빛여울채 1,500세대 중 공모에 선정된 세대통합 15세대와 단일세대 650세대 등 총 665세대이며 총 4차로 나눠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국비 107억4,300만원을 포함한 179억원이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방비는 시와 광주도시공사가 각각 50억원, 21억6,200만원을 분담한다.

세대통합 리모델링은 연접한 소형 평형(전용면적 26㎡) 2가구를 넓은 평형(전용 52㎡)으로 통합해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일세대 리모델링은 1인가구, 주거약자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임차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고성능 단열재, 창호 교체 및 고효율 보일러, LED 전등 교체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시공사와 계약을 완료했다. 실시설계 중 임차인에게 사업설명회 개최 및 리모델링 희망자를 모집했다. 9월부터 1차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키로 하고, 공사기간 임차인의 주거지도 마련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비 절감, 탄소중립 실현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도시철도, 청년인턴 채용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도시철도 서비스 증진과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체험형 인턴 직원 28명을 공개 채용한다.

지난달 31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채용분야는 사무 14명, 차량 4명, 기계 8명, 역무자동화 2명이며, 근무 기간은 1개월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있거나 공고일 전일까지 3년 이상 광주시로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자로, 학력제한은 없다.

응시원서는 오는 3일까지 광주도시철도공사 본사 1층 원서접수장에서 접수하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27일에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www.grtc.co.kr)나 공사 총무팀(062-604-8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철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목포시 죽교동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2021 김대중 평화회의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대중 평화회의, 평화·인권 축제로”

전남도, 2차 조직위서 행사 계획 심의

전남도가 오는 10월 27~28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하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를 국내외 석학과 평화지도자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평화·인권축제로 치르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2021 김대중평화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2차 ‘조직위원회’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조직위원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남궁진 전 국회의원, 박명림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2021 김대중평화회의’의 사전홍보계획, 전야제, 국내외 연사 섭외 현황, 각 세션과 라운드테이블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사전홍보 프로그램인 대국민 평화미소 캠페인은 지난달 17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전야제로 열리는 10월 26일 평화의 미소 콘서트에는 조선팝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이날치밴드가 참가해 평화 대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전망이다.

‘코로나19를 넘어 세계평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10월 27~28일 열리는 학술회의에선 사나나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녀인 제나니 노시츠웨 들라미니 주한 남아공 대사 등 국내외 석학과 평화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2021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화해와 용서, 인권,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평화축제가 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을 세계평화의 주체로 알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화와 인권에 대해 다양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세계적 회의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남도장터에서 추석 선물하세요”

도, 14일까지 소비 촉진 캠페인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전남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도장터 추석 선물 사주기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추석을 맞아 전남 농축수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지자체, 도 산하 공공기관, 기업·단체, 향우회 등과 연계해 범도민 소비촉진 행사로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전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추석 선물 온라인 기획전 30% 할인 행사, 기관발주용 남도장터 추석 선물할인 이벤트, 대형 포털 쇼핑몰과 연계한 특별할인 행사,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농축수산물 특판전 등을 추진한다.

또한 남도장터 구매 알선자 특전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 남도장터 포인트를 지급하며, 미국 동포 대상 고국배송 서비스도 한다.

제품 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도 집중한다. 출향 향우 등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남도장터 추석 선물 기획전 전단지 7만 부를 수도권 소비자와 도내 기업에 배포한다. /길용현 기자

전남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출범

33개 기관과 협업체계…예방·감시활동 강화

전남도가 도내 기관들과 손잡고 도민 안전을 위한 감찰 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인 안전 사각지대 제거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33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형식적인 안전관리, 감독과 안전무시 관행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협의회는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도민안전실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22개 시·군 부단체장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도내 10개 안전 분야 공사·공단의 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협업해 안전부패 실태조사와 정보 제공, 이행 성과 공유, 합동기동감찰 실시 등 안전감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높은 수준의 재난예방 활동을 펼친다.

참여기관 중 전남개발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 안전관리실태를 합동 감찰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 내 가스 사용 실태를 확인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위험 건설 현장 불시 안전감찰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길용현 기자